

법원, 전두환 회고록 출판·배포 제동

법원이 5·18기념재단 등 5·18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들이 제기한 전두환(87) 씨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에 대한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2차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광주지법 제23민사부(부장판사 김승환)는 5·18기념재단과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구속부상자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가 전두환 씨와 전재국 씨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 씨 측이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해당 단체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 부분을 삭제하지 않고서는 회고록을 출판·발행·인쇄·복제·판매·배포 및 광고해서는 안될 의무가 있다"며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어 "전 씨 측이 문제되는 부분을 삭제하지 않고 회고록을 출판·배포하는 등의 행위를 앞으로도 반복할 개연성이 소명되는 만큼 가처분 결정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위반 행위 1회당 500만 원의 간접강제를 명한다"고 결정했다.

소송을 제기한 단체들은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기념하고 계승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전 씨는 저자로 전재국 씨는 출판자로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라는 제목의 도서에 관한 출판등록을 마치고 이를 인쇄·발행했다.

5·18 단체들은 이번 2차 가처분 신청에 앞서 지난해 전 씨 등을 상대로 광주지법에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1차 가처분 신청)을 했다. 1차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은 단체들이 회고록에서 사제를 구한 표현들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판단, 이를 삭제하지 않고서는 도서를 출판하거나 배포해서는 안된다는 결정을 했다.

이후 전 씨 측은 가처분 결정에서 사제를 명한 부분만을 검게 가리는 수정을 거친 뒤 회고록을 다시 발행했다.

이에 반발한 기념재단 등은 압매장 부인·무기 피탈 시각 조작·광주교도소 습격 왜곡 등 40곳의 표현이 왜곡됐으며 전 씨 측은 상대로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등 2차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압매장·광주교도소 습격·계엄군의 비무장 민간인 살상 행위·전두환 씨의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책임 부분·당시 경찰의 역할·김대중 전 대통령 민중혁명기도 부분 등 문제되는 15개의 쟁점에 대해 적시된 표현의 허위성과 명예훼손 여부를 검토했다.

“34개 표현·2개 일부...명예훼손”

“관련 표현 삭제않을 시 출판 안돼”

“위반 1회당 500만 원 간접 강제”

그 결과 단체들이 사제를 구한 40개의 표현 중 34개의 표현은 전부, 2개의 표현은 일부가 허위사실에 해당하며 이는 5·18 민주화운동 및 참가자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훼손함과 동시에 단체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 역시 훼손하고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단 단체들이 사제를 구한 표현 중 의견 소개, 단순히 추상적 개념을 설명한 표현, 허위사실로 보기 어려운 부분, 5·18민주화운동 및 참가자나 단체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훼손된다 보기 어려운 부분, 허위사실로 불만한 소명자료가 없는 부분은 삭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전 씨 측은 반약 허위사실을 적시, 단체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 같은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었으며, 이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위법성 조각사유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광주지법 제14민사부(부장판사 신신호)는 지난해 2월 5·18 기념재단 등이 전 씨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관한 재판을 열고, 2차 소송의 결정이 내려지면 1차와 2차 두 사건을 병합하기로 했다.

주춘정 기자



“선생님 사랑해요” 스승의 날인 15일 서울 동대문구 정화여자상업고등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빵을 나눠주며 포용을 하고 있다.

광주 엔테로바이러스 감염 영·유아 환자 급증 ‘주의’

보건환경연, 손씻기 등 당부

광주지역에서 수막염이나 수족구병 등을 유발하는 엔테로바이러스 감염 영·유아 환자가 급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5일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원과 질병관리본부가 광주지역 병원에 내원 또는 입원한 영·유아 환자의 감염상태를 조사한 결과 지난 4월 6.7%(45건 중 3건)였던 엔테로바이러스 검출률이 5월 첫째 주 9.5%(21건 중 2건), 셋째 주 31.8%(19건 중 6건) 까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바이러스가 검출된 환자 모두 5살 이하 영·유아로 확인됐다. 엔테로바이러스는 고열이나 두통, 구토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성 수막염과 손, 발, 구강에 수포성 병변

이 생기면서 열이 나는 수족구병 등 다양한 임상증상을 보인다.

대부분 가벼운 증상으로 회복되지만 중추신경계에 감염되면 뇌수막염, 뇌염, 마비증상 등 심각한 합병증이 동반돼 사망할 수도 있다.

전과경로는 직접접촉이나 호흡기 분비물 오염된 물, 장난감 등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엔테로바이러스 유전자형은 콕사키바이러스 10건, 에코바이러스 1건이며 중추신경계나 폐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엔테로바이러스 71형은 아직까지 검출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광주지역 유행추이를 보면 5월(검출률 34.4%)부터 9월(55.8%)까지 집중적으로 엔테로바이러스가 유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혜영 수인성질환과장은 “기온

이 상승하고 외부활동이 잦아지면서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상을 보이는 영유아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엔테로바이러스는 아직 예방백신이나 효과적인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손씻기나 장난감 소독관리 등 예방이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서은홍 기자



2명 사상케 한 40대 음주 뺑소니범 긴급체포

순천경찰서는 15일 운동하던 40대 남성들을 음주 차량으로 치어 사상케 한 뒤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사상·도로교통법 위반)로 김모(45·여)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 14일 오후 8시52분께 순천시 별량면 한 식당 앞 편도 1차선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27%(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상태로 차를 몰던 중 갓길에서 조깅을 하던 A(47)씨와 B(47)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숨졌고, B씨는 중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지인과 술을 마신 뒤 10km 가량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경찰에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될까 두려워 달아났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순천=김승호 기자

불법구조변경 등 해양안전 침해사범 97명 검거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달 16일부터 30일까지 15일간 다중이용선박 등을 대상으로 불법 선박 구조변경 등 해양안전 침해사범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97명(96건)을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안전검사 미수검 선박이 70건, 불법 중·개축 9건, 항로 내 어로행위 7건, 해기사 미승선 5건 등으로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운항하는 선박이 다수를 차지했다.

이번 단속은 봄 행락철을 맞아 여객선과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의 대형 해양사고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해양안전 침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실시했다.

서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 사회를 구현하고 안전한 바다와 해양 법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광주서 교사가 답안지 분실 전체 학생 재시험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중간고사 시험감독 교사가 답안지를 분실해 학년 전체 학생들이 재시험을 치르자 일부 학생과 학부모들이 성적이 하락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15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4일 광주 동구 모 여고에서 중간고사 영어시험을 치른 후 한 시험감독 교사가 2학년 학생 주관식 답안지 5장을 분실했다.

채점 과정에서 뒤늦게 답안지 분실을 파악하고 연휴기간 중 답안지를 바린 것으로 추정되는 교실 내 쓰레기통을 확인했으나 이미 치워진 상태였다.

해당 시험감독 교사는 시험이 끝나고 답안지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5명의 주관식 답안지를 다른 학생들이 정정 후 폐기한 답안지로 착각하고 쓰레기통에 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연휴가 끝나자 곧바로 8일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열고 답안지가 분실된 영어과목 주관식 시험만 다시 치르기로 결정했다.

2학년 전체 학생 237명은 지난 10일 재시험을 치렀다. 재시험 후 일부 학생과 학부모들은 당초 시험성적보다 하락했다며 학교 측에 항의하고 있다.

조인호 기자

이별통보에 프랑스 연인 때린 20대

서울 수서경찰서는 말다툼을 벌이던 외국인 연인을 폭행한 20대 남성 A씨를 향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6시에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주택에서 프랑스 국적의 연인 B씨의 얼굴 등을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 당일 A씨는 B씨로부터 이별통보를 받아 감정이 상해 말다툼을 벌였다.

당시 민취상태였던 두 사람 간 언쟁은 폭력으로 이어졌고 급기야 경찰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A씨를 붙잡았다.

B씨는 약 2달 전에 취업비자로 입국했으며, 이후 A씨와 만나 연인 관계로 지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데이트 폭력으로 보고 A씨에게 B씨에 대한 접근을 일체 하지 않도록 엄중 경고했다.

